

제12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18년 6월 24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1. 프랭클린 D.루스벨트: 대서양 헌장(1941)

미국 대통령과 영국 여왕의 정부를 대표하는 처칠 총리는 회합을 가진 후 세계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꿈의 기초가 되고 있는 양국 국가정책상의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천명할 필요를 느꼈다. -중략-

여덟째,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정신적 이유뿐 아니라 현실적 이유 때문에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자국 국경 밖에서 침략을 자행하거나 자행할지도 모를 국가들이 육, 해, 공군의 군비 증강을 계속할 경우 미래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은 보다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전반적 안보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그 같은 국가들의 군축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양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군비 부담을 경감할 기타 모든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지원 및 장려할 것이다.

2.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1947)

해리 S. 트루먼이 1947년 3월 12일 의회에 보낸 이 교서의 직접적인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다. 미국이 “전체주의 정권들”을 상대로 한 자유국가의 방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미국 외교정책의 급격한 새 전환점으로, 또한 서반구가 이제 더 이상 유럽 식민화에 예속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한 1823년의 먼로 독트린의 세계적인 확대판으로 널리 환영 받았다. 소련은 트루먼 독트린을 소련 지배지역 및 소련 확장에 대한 미국의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씨앗은 빈곤과 싸움이라는 나쁜 땅에서 피지고 자랍니다. 이 씨앗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최대로 자랍니다.

전세계 모든 국민이 그들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지도력이 흔들린다면, 세계평화는 위협에 빠질 것입니다. - 그리고 이는 반드시 이 나라의 안녕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3.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 평화를 위한 원자력(1953)

1953년 12월 8일 유엔에서의 연설에서 원자력 개발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전세계 알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원자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자력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데 모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전세계에 불러 일으켰다.

원자폭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미국은 단지 힘을 보여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대한 결정이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본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수도와 군사령부에서, 그리고 통치자건 국민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세계를 공포에서 평화로 이끌 결정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미국은 여러분 앞에서, 즉 전 세계 앞에서 가공할 핵의 딜레마의 해결을 돕겠다는 결심, 즉 인간의 놀라운 발명이 인간의 죽음에 공헌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마틴 루터 킹: 링컨 기념관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963)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차별이라는 체인에 묶여진 사회에서 그들의 자유를 깨닫고자 했던 미국 흑인들의 고통에 대해 짧고 다소 형식적인 낭송을 준비했다. 그가 막 자리에서 앉으려는 순간 가수 펠 가수였던 마할리아 잭슨이 “마틴! 그들에게 너의 꿈을 말해, 그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라고 외쳤다. 청중들의 외침에 고무된 그는 그의 예전 연설 중 몇 가지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의 민권에 대한 획기적인 진술이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로 마크된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 모든 인종, 피부색,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꿈.

그러나 나는 정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있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흑인 사회를 집어 삼켜버린 놀라운 새 투지가 모든 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사실이 입증하듯, 우리의 많은 백인 형제들은 그들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우리가 자유가 울리게 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들,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영가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었도다!”를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5. 린든 B.존슨: 민권 연설(1964)

188년 전 이번 주에 용맹스러운 일단의 남성들이 자유를 위한 기나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국을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자유의 이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인간지사에서 정의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양도 불가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자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피부색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미국 국민 각자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미국 국민 어느 누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의 앞에 평등한 자들은 투표장에서도, 교실에서도, 공장에서도, 호텔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영화관에서도 그리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장소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인종 차별의 근원을 봉쇄해 버립시다. 슬기롭고 이해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 상광없는 차이를 내버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합시다. 우리의 무한한 힘과 우리의 속박되지 않은 정신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공정하고도 슬기로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정해 주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로워질 날을 서둘러 다가오게 합시다.